

# 임진강 지류천의 정자



여 백

## 청계정 (聽溪亭)터

- 소재지 : 파주시 파평면 늘노리 235 파산서원 주변
- 건립시기 : 조선중기(1540년대)
- 건립주체 : 청송 성수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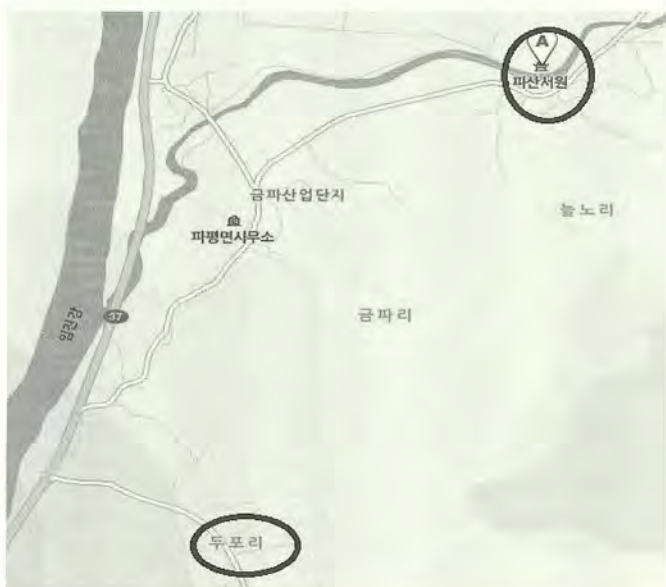
### 1. 위치와 주위환경

1984년도 편찬된 『파주군사坡州郡史』의 유적遺蹟면<sup>20)</sup>에 의하면 청계정聽溪亭은 ‘소개牛浦의 상류에 있었다. 성씨成氏가 지었다.’고 하였고, 1995년에 편찬된 『파주군지坡州郡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파평면 두포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청송聽松 성수침成守琛이 응담에서 샘내를 거쳐 흐르는 맑은 냇물과 임진강변의 조수물이 오르내리는 무정산 절벽 아래 정자를 세우고 학문에 전념하면서 인재를 양성하였다고 한다.

이 기록에서 보면 파평면 두포리와 무정산 절벽 아래는 위치가 전혀 다른 곳으로 청계정의 위치를 잘못 기록한 것 같다.

20) 파주군사편찬위원회, 파주군사. p.506



청계정聽溪亭이 있었다는 무정산은 파주 파평면 늘노리 파산서원 뒷산으로, 청계정의 위치는 파평면 두포리가 아닌 파평면 늘노리 파산서원 부근으로 정정해야 할 것이다.

파산서원 뒷산 무정산은 현재 마을 사람들은 ‘우계산’이라고도 부르는데 늘노천을 앞에 둔 이 마을에 청송 성수침이 처가가 있는 이 곳에 내려와 지내면서 스스로를 죽우당竹雨堂, 파산청은坡山清隱, 우계한민牛溪閑民이라고 칭하면서 이 곳에서 은거하였다. 이곳에 거주하면서 무정산 절벽 아래 늘노천 앞에 청계정聽溪亭을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1564년 성수침이 돌아가자 율곡 이이 선생의 발의로 이곳에 청송서원을 건립한 후 1650년 파산서원坡山書院으로 사액을 받았다는 기록이 《우계연보牛溪年譜》(1611, 광해군3)에 있다.

제생들이 파산坡山에 서원을 세웠다. 율곡이 일찍이 많은 선비들을 이끌고 청송서원聽松書院을 우계에 경영하였는데, 임진왜란에 불탔다. 이때에 이르러 제생들이 선생을 함께 배향하기 위하여 옛터에 증창重創하였다.



현재 파산서원 전경. 뒷산이 무정산이다.

## 2. 관련 인물

### ● 성수침 成守琛

1493(성종 24)~1564(명종 19). 조선 중기의 학자.

본관은 창녕 昌寧. 자는 중옥 仲玉, 호는 청송 聽松·죽우당 竹雨堂·파산청은 坡山淸隱·우계 한민 牛溪閔民. 한성부윤 득식 得識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현령 충달 忠達이고, 아버지는 대사헌 세순 世純이다. 어머니는 강화부사 김극니 金克泥의 딸이다.

아우 수종 守琮과 함께 조광조 趙光祖의 문인으로 1519년(중종 14)에 현량과 賢良科에 천거되었다. 그러나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와 그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처형 또는 유배당하자 벼슬을 단념하고 서울 백악산 아래 청송당 聽松堂이라는 편액을 내걸고 두문불출하였다. 이때부터 과업 科業을 폐하고 『대학』과 『논어』 등 경서 공부에 전념하였다.

1541년 유일(遺逸: 과거를 거치지 않고 학덕으로 높은 관직에 임명될 수 있는 선비)로서 후릉참봉 厚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처가가 있는 우계 牛溪에 은거하였다.

1552년(명종 7) 내자시주부 內資寺主簿·예산현감 禮山縣監·토산현감 兔山縣監·적성현감 積城縣監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1564년 사지 司紙에 임명되었으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사퇴했으며, 죽을 때에

는 집안이 가난하여 장례를 지낼 수가 없었다. 이에 사간원의 상소로 국가에서 관곽 棺槨과 미두米豆와 역부役夫를 지급해주고 사헌부집의 司憲府執義에 추증하였다.

조선 초기 성리학의 토착화는 조광조를 중심으로 하는 도학사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의명분과 요순堯舜의 지치至治를 현실에 구현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묘사화로 불가능하게 되자, 은일(隱逸: 초야에 묻혀 학자로서만 활동)을 일삼고 산간에 묻혀 자기수양에 힘써 이러한 학풍을 몸소 실천하였다.

그의 문하에서 아들 혼潭을 비롯한 많은 석학들이 배출되었다.

좌의정에 추증되었으며, 파주의 파산서원坡山書院과 물계勿溪의 세덕사世德祠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저서로는 『청송집聽松集』이 있으며, 글씨를 잘 썼는데 「방참판유령묘갈方參判有寧墓碣」 등이 있다.

#### ● 파산서원坡山書院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호(1983.09.19 지정)

조선 중기 학자인 청송 성수침(1493~1563)과 그의 아들 우계 성훈(1535~1598), 형제 절효공 성수종(1495~1533) 및 휴암 백인걸(1497~1579)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서원이다. 1568년(선조 1) 백인걸白仁傑·이이李珥 등의 관료와 파주 일대 유생의 발의에 의하여 성수침成守琛을 제향하고, 유생의 장수처藏修處로 삼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성수침은 조광조趙光祖의 문인이며, 중종·명종 때 도학과 청절淸節로서 이름이 높아 당시 기호사림의 대표적인 존재로 추앙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서원은 선조 초에 있어 기호사림이 중심이 된 서인의 본거지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수침의 아들 성훈成湮이 동인東人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1650년(효종 1) 비로소 파주 유생 백홍우白弘祐 등의 청액소請額疏를 계기로 사액을 받게 되었다.

1628년(인조 6) 성훈을 추가 제향하고, 1705년(숙종 31) 백인걸의 위패를 인근 자산서원紫山書院으로부터 옮겨와 추가 배향하였으며, 1785년(정조 9) 성수침의 동생 성수종成守琮을 추가 배향하였다. 이 서원은 1871년(고종 8) 대원군의 서원철폐시에도 훼철되지 않고 존속한 47개 서원 중의 하나로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그 뒤 퇴락하여 현재는 사묘祠廟만 남아 있으며,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호로 지정되어 있다. 사묘에는 성수침을 주벽主壁으로 좌우에 성수종·백인걸·성훈을 배향하고 있으며, 매년 봄·가을에 향사를 지내고 있다.



### 3. 관련 자료

- 『약천집藥泉集』 제2권,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1629~1711), 1723년 간행

시詩

백악산白岳山 아래 청송당聽松堂의 옛터에 사림士林들이 추모하여 새로 집을 짓다.

새로 지은 집에 예전의 현판 걸어 놓으니 / 新堂還揭舊時名  
 선생이 이곳에서 정도眞道를 지키심 생각하네 / 緬憶先生此葆貞  
 이미 대동에도 높은 기상을 볼 수 있고 / 已向大冬看氣象  
 또 높은 베개에서 바람소리 들을 수 있다오 / 且從高枕挹風聲  
 층층의 파도 소리 인간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고 / 層濤洗盡人間累  
 깨끗한 비파 소리 태고의 정을 이루누나 / 清瑟彈成太古情  
 다시 시원한 물소리 문앞을 지나가니 / 更有泠泠泉過戶  
 봉황새 서로 화답하여 우는 듯하여라 / 況如鸞鳳和相鳴

※ 청송당聽松堂 : 성수침(成守琛 : 1493~1564)이 공부하던 서재의 이름이다.

● 파산서원상량문 坡山書院上樑文, 『택당선생 별집 澤堂先生別集』 제12권

四賢爲一國之望。薰德莫近於鄉閭。諸生有百世之思。揭虔宜先於廟宇。恭新華構。式瞻舊基。惟坡山之一隅。介漢京之三輔。質文流澤。回倒瀾於商周。扶輿  
088\_487c炳靈。振墜緒於關洛。卓哉聽松高標。凝然休相直節。龍藏鳳舉。爲學之禁不搖。金悍玉剛。誣獄之居斯沮。乾坤正氣。擴方寸而有餘。箕穎清風。曠  
終古而靡歇。同扶靜菴之一脈。大啓宣廟之初元。逮默老之過庭。有栗翁之擇里。高明博大。世推王佐之才。篤實輝光。家襲幽人之吉。希文明道之期待。不  
爲空言。伊尹武侯之遭逢。亦云嘉會。惟直尋之不屑。或方枘而難容。雖暑褐寒  
裘出處之殊軌。而夏絃秋誦講授之得明。膝下之榻已穿。門前之履常滿。林間高  
閣。幾望邵子之車。穎上扁舟。屢接韓公之席。山摧之慟。川逝如斯。鄭康成之  
師生。名留東郡。劉西澗之父子。道冠南康。地相遠世相懸。猶云前後一也。生  
同志死同傳。不啻朝暮遇之。獨恨宮墻之就墟。俄覺風流之掃地。升鱣之堂纔  
閉。下馬之陵空瞻。鳥語花叢。窺澗戶兮無人。松聲竹色。遡襟期兮如昨。幸賴  
魏清逸世隱。頗見曾南豐嫡孫。大義未乖。西河不疑夫子。同聲相應。安定只稱  
先生。仍卜基而勅祠。便置田而贍廩。望函丈之室則鷄犬相聞。尋舞雩之壇則鳶  
魚故在。依湖齋而待士。倣廬阜而揭規。朗月清溪。喚起瑤琴之興。長堤斷壁。  
粧成砥柱之姿。吾黨盍歸乎來。前賢有樂於此。讀其書論其世。能自得師。會以  
文輔以仁。庶幾成習。恭拈頌筆。助舉脩梁。拋梁東。晨曦吐燾漲霞紅。天風掃  
出嶽巖面。依舊高撐碧落中。拋梁西。江外芙蓉萬朵低。記得清明遊衍處。傍花  
隨柳過前堤。拋梁南。犢口清泉漾蔚藍。更問仙莊長物甚。雲崖隨處足松杉。拋  
梁北。霽月光風誰會得。看取玻瓈十畝方。淤泥自避青蓮色。拋梁上。神光夜夜  
動星象。緹箱十襲萬言書。曾與君王說伯王。拋梁下。一穗爐薰繞書架。髣髴當  
年笙聲音。山人不是無心者。伏願上梁之後。圖書一院。香火千秋。微言著而浮  
議消。大道夷而私徑塞。明體用之學。勵忠孝之倫。灼知群聖之根源。起爲當代  
之師表。庶無負於往哲。將永賴於斯文。

● 파산서원 坡山書院 상량문

사현四賢은 온 나라가 우리러보는 분들이다. 그러나 그 덕에 감화된 것으로 말하면 그  
고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까이에서 받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제생諸生이



야말로 백세토록 사모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우선 먼저 묘우 廟宇를 세우는 일에서부터 경건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에 삼가 현자들의 자취가 서린 옛터를 우러러 바라보면서 새로 성대하게 서원을 세우게 되었다.

생각건대 파산 坡山의 한 지역으로 말하면, 한경 漢京의 삼보 三輔로 자리를 잡고서, 질質과 문文의 혜택을 흘러보내 상高과 주周의 뒤집힌 물결을 만회하였는가 하면, 굳게 붙잡으며 일으켜 세우는 신령스러운 힘을 받게 드러내어 관락 關洛의 추락한 학문의 기풍을 다시 진작시킨 곳이라 하겠다.

탁월하도다 청송 淸松 성수침 成守琛의 드높은 그 풍도여, 흔들리지 않는도다 휴상 休相 휴암 休菴 백인걸 伯仁傑의 곧은 그 절조여. 용처럼 숨었다가 봉황처럼 날아오르자 위학 僞學이 여지없이 금지되었고, 쇠처럼 굳세고 옥돌처럼 단단하게 대처하자 무옥 誣獄 을사사화 乙巳士禍이 중도에 저지되었다.

하늘과 땅의 바른 기운은 마음을 확충하고도 남음이 있고, 기산 箕山과 영수 潁水의 맑은 바람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위지 않고 있나니, 다 함께 정암 靜菴 조광조 趙光祖의 한 도맥 道脈을 일으켜 세워 선묘 宣廟의 성대한 첫 시대를 크게 열어 주었도다.

그러다가 묵로 默老가 뜨락을 지나가고 율옹 栗翁이 마을을 택하게 되었는데, 율옹은 그 고명 高明함과 박대 博大함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왕좌 王佐의 인재라는 추천을 받았고, 묵로는 그 독실 篤實함과 휘광 輝光으로 인하여 한 집안에서 유인 幽人の 길함을 이어받았으니, 희문 希文과 명도 明道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는 것도 헛말이 아니요, 이윤 伊尹과 무후 武侯가 서로 만나듯 또한 아름다운 모임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건대, 직심 直尋을 달갑게 여기지 않은 나머지 간혹 둥근 구멍에 네모진 기둥 끝이 들어가기 어려운 때도 있었는데, 비록 여름에 베옷을 입고 겨울에 갓옷을 입으며 나아가고 물러간 그 길은 다른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름에 거문고를 뜯고 가을에 낭송 朗誦을 하며 강석 講席을 열어 제자를 가르치는 면에 있어서는 서로 뜻이 같았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무릎을 댄 의자에 구멍이 나고 문 앞에 신발이 항상 가득한 가운데, 숲 사이 높은 누각에 소자 鄒子의 수레가 오는 것을 몇 번이나 바라보았고, 영수 潁水 위의 조각배에서 여러 차레나 한공 韓公과 자리를 함께 하곤 하였다.

산이 무너지는 듯한 비통함 속에 세월은 이와 같이 물처럼 흘러가고 말았는데, 정강성 鄭康成의 사생 師生은 지금도 이름을 동쪽 고을에 남기고 있고, 유서간 劉西澗의 부자 父子는 그 도道가 남강 南康에서 여전히 으뜸이다. 비록 땅은 서로 멀고 세대는 떨어졌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앞이나 뒤나 모두 그 궤軌가 일치하고, 살아서는 뜻을 같이하다가 죽어서도 함께 전해지게 되었으니, 아침저녁에 만나는 사이일 뿐만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유독 유감스럽게 생각된 것은 옛날의 그 거처가 폐허로 변해간다는 사실이요, 문득 깨닫게 된 것은 옛날의 풍류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전어鱧魚가 올라왔던 강당의 문이 금세 닫히고, 말에서 내렸던 언덕만이 눈 속에 들어 올 뿐, 새가 노래하고 꽃이 피어도 시냇가의 집에는 인적人跡을 찾을 수가 없고, 그저 솔바람 소리와 푸르른 대나무만이 바로 어제 일처럼 심금心琴을 울려 줄 따름이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대대로 은거한 위청일魏淸逸의 집안에 힘입어, 적손嫡孫인 증남풍曾南豐의 출현을 자못 보게 되었다. 큰 의리에 어긋나게 하면 안 되는 만큼 서하西河가 부자父子와 비슷하게 되지 않게 함은 물론이요, 같은 소리끼리 서로들 호응하면서 그저 안정선생安定先生이라고 일컫기에 이르렀다.

이에 집터를 정하여 사우祠宇를 창건하고 전토田土를 배정하여 곳간을 채우게 되었나니, 함장函丈의 강당을 바라보노라면 닭이 울고 개가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리고, 무우舞雩의 제단을 찾아가노라면 예전처럼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어노는 광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호재湖齋에 의거하여 다사多士를 가르치고 여산廬山을 본받아서 청규淸規를 내걸게 되었나니, 밝은 달과 맑은 시내는 요금瑤琴의 흥취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긴 독과 끊어진 벼랑은 지주砥柱의 자태를 드러내 보여 주게 되었다.

우리들이 어찌 이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기는 바로 선현先賢들이 소요逍遙했던 그곳이다. 그 글을 읽고 그 세상을 논하면 스승을 절로 만날 수 있을 것이요, 학문을 통해 벗을 모으고 벗을 통해 자신의 인덕을 배양한다면 그 습관이 본성처럼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찬송하는 벗을 삼가 들어, 들보를 올리는 일에 하나의 힘을 보탬까 한다.

들보 동쪽에다 떡을 던지세나 / 拋梁東

아침 햇살 산이 토하자 붉은 놀이 넘쳐나네 / 晨曦吐燄漲霞紅

하늘 바람에 벗겨진 깎아지른 저 산 보소 / 天風掃出巖巖面

옛날처럼 드높이 창공을 버티고 솟구쳤네 / 依舊高撐碧落中

들보 서쪽에다 떡을 던지세나 / 拋梁西

강 너머에 일만 송이 부용꽃이 드리워졌네 / 江外芙蓉萬朵低

기억이 나고말고 청명일에 노닐던 곳 / 記得清明遊衍處

꽃 찾아 버들 따라 앞 독길을 지났었지 / 傍花隨柳過前堤  
 들보 남쪽에다 떡을 던지세나 / 拋梁南  
 송아지 입 댄 맑은 물에 쪽빛 하늘이 일렁이네 / 犢口清泉漾蔚藍  
 다시 묻노니 신선의 집에 남는 물건이 무엇인고 / 更問仙庄長物甚  
 구름 낀 벼랑 곳곳마다 소나무 삼나무들이라오 / 雲崖隨處足松杉  
 들보 북쪽에다 떡을 던지세나 / 拋梁北  
 제월 광풍 그 경지를 누구라서 알아볼까 / 霽月光風誰會得  
 수정 같은 열 이랑 네모진 연못을 한번 보소 / 看取玻璃十畝方  
 진흙탕도 청련의 색은 알아서 피해 주는구려 / 淤泥自避青蓮色  
 들보 위쪽에다 떡을 던지세나 / 拋梁上  
 밤마다 신기한 빛이 별자리 위로 올라가네 / 神光夜夜動星象  
 열 겹의 만언서가 비단 상자에 들었나니 / 緞箱十襲萬言書  
 임금님에게 패霧와 왕土을 설명드린 글이라오 / 曾與君王說伯王  
 들보 아래쪽에 떡을 던지세나 / 拋梁下  
 한 오라기 향연香煙이 서가를 맴도누나 / 一穗爐薰繞書架  
 옛날의 생황이며 경쇠 소리가 들리는 듯 / 髣髴當年笙磬音  
 산사람도 마음 없이 지내는 이가 아니라오 / 山人不是無心者  
 삼가 바라건대, 들보를 올린 뒤에는 도서圖書를 간직한 이 하나의 서원에 천추토록 향  
 화香火가 이어짐은 물론이요, 뜻 깊은 말만 드러나고 부박浮薄한 의논은 사라지면서, 대  
 도大道가 훤히 열리고 사적私的인 길은 막히게 되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체용體用的 학문  
 을 밝히고 충효忠孝의 윤리를 가다듬는 동시에, 못 성현들의 근원을 분명히 알고 당대  
 의 사표師表를 일으켜 세워야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과거의 철인哲人들에게 누를 끼치  
 지 않으면서 영원토록 사문斯文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될 것이다.

※ 사현四賢 : 파산서원에 봉안된 성수침咸守琛, 성수중咸守琮, 성훈咸暉, 백인결白仁傑을 가리킨다.

● 《조선왕조실록》 명종 29권, 18년(1563 계해) 12월 26일(경오) 2번째기사

징사 성수침의 줄기---징사徵士 성수침咸守琛이 졸卒하였다.

자字는 증옥仲玉으로 창녕인昌寧人이다. 아름다운 자질을 갖고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  
 터 마치 어른처럼 의젓하였으며 효성이 지극하여 사람들은 그를 ‘효아孝兒’라고 불렀

다. 글을 읽을 줄 알면서부터는 과정을 정하여 뜻을 독실히 하고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부친의 상을 당하여서는 아우 성수종(成守琮)과 함께 애휼(哀縗)하기를 예절에 지나게 하였고 죽을 마시며 삼년상을 마쳤다. 어떤 나그네가 그 여막(廬幕)을 지나다가 효성에 감동하여 시(詩)를 지어 던져주고 갔는데, 이 시에는 이르기를,

성씨 집안 두 아들이  
 가룩한 그 효행 가군을 이었네  
 미음만 마시는 그 정성 해를 가로지르고  
 분향 뒤의 곡성이 구름을 뚫었다네.  
 아침 저녁으로 신주에 상식(上食)을 올리고  
 새벽되고 황혼되면 분묘를 알현하여  
 한결같이 주자(朱子) 법제 따르다니  
 오늘날 이에서 처음 들어 보았네.

라고 했는데, 끝내 그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었다. 삼년복을 다 마치고 난 뒤에도 언제나 기일(忌日)을 당하면 열흘 전부터 재계(齋戒)하였으며 초상 때처럼 애통해 하였다. 아침 저녁으로 사당에 배알하였으며, 출입할 때도 반드시 고하였다. 그의 형제가 조광조 문하에서 배워 모두 명성이 대단했는데, 수종은 청결 영특하였으나 악한 것을 지나치게 미워한 데 반해 수침은 혼후(渾厚) 독실하며 침중(沈重) 강의(剛毅)하면서도 온화하고 순실(純實)하였다. 태학의 생도가 그의 효행을 상소하여 조정에 알리려 하자, 영의정 상진이 그들 형제와 같이 공부했던 벗으로 그때 당시에 상서(上書)에 있었는데 이를 저지하면서,

“아무 형제는 학문에 힘쓰는 선비다. 앞으로 원대한 경지에 이를 것인데 한 가지 선행(善行)을 가지고 너무 일찍 세상에 알려지게 해서는 안된다.”

하여 올리지 못하고 말았다. 기묘년(2706) 간에 조정에서 지치(治治)를 일으킬 무렵 상종하던 선비 중에 명성이 너무 큰 자가 있어 수침이 유독 그를 먼저 우려하였었다. 명류(名流)들의 화가 발생하자 그는 세상과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없음을 스스로 헤아리고 드디어 과업(科業)을 버리고 백악산(白巖山) 아래 집 뒤에 두어 칸 집을 짓고 ‘청송당(聽松堂)’이란 현판을 달고는 문을 닫고 출입도 하지 않고 혼자 그 속에 앉아서 날마다 성인(聖人)의 교훈을 외우며 태극도(太極圖)에서부터 정주서(程朱書)에 이르기까지 손수 다 베껴가면서 의리를 탐구하되 속(俗)된 생각으로 마음을 쓰지 않았다.

중종 신축년에 유일(遺逸)에 천거되어 후릉(厚陵) 2707) 참봉에 제수되었지만 사은만 하고

사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리고는 파평산 아래 우계<sup>牛溪</sup> 부근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갔는데, 식량이 떨어지는 등 극히 가난하였으나 모친 봉양에는 갖추지 않은 것이 없었다. 금상<sup>金上</sup> 임자년(2708)에 조식<sup>曹植</sup>·이희안<sup>李希顔</sup>·성제원<sup>成楸元</sup>·조옥<sup>趙昱</sup>과 함께 다시 불러 특별히 6품 벼슬을 주어 모두 지방 고을에 보직<sup>補職</sup>되었는데, 수침이 실상<sup>實相</sup> 천수<sup>天首</sup> 2709)에 올랐다.

조정에서는 그가 관직에 나오기를 바라서 세 번이나 고을을 바꾸어 가며 임명했지만 끝내 모친 병환을 이유로 나아가지 않았는데, 그 해에 모친이 세상을 떠나니 당시 수침의 나이 60이었다. 애험<sup>哀毀</sup>하여 병을 얻은 그는 발병만 하면 기절하곤 하였지만 그래도 3년의 여묘살이를 마쳤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풍습 중에 묘제<sup>墓祭</sup>의 규례는 사당 중법<sup>祠堂宗法</sup>의 제도만도 못하여 절기 때 자손들이 돌려가며 마련하는 전구<sup>奠具</sup>가 간혹 정결하지 못하며 세대<sup>世代</sup>가 점점 멀어지면 그 제사는 그냥 폐지하게 된다.’ 하고는 그 선영<sup>先塋</sup>에 토지와 사람을 넉넉히 두게 하고 묘소 아래에 집을 지어 그릇 두는 방과 곡식 두는 창고와 음식 마련하는 청<sup>廳</sup>을 설치하고 또 재계하는 방을 마련하는 등 모든 기용을 몸소 계획하여 묘제의 법식을 세웠다. 어떤 사람이 너무 후하게 하여 앞으로 해이해져서 폐지되지는 않을까 염려된다고 하니, 답하기를,

“나로부터 하는 일이라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하였다. 경신년(2710)에 상의 특명으로 사지<sup>司紙</sup>에 제수되었다. 당시 수상<sup>首相</sup>이었던 상진이 그에게 나와서 사은하도록 권하며,

“은명<sup>恩命</sup>이 상의 충심에서 나온 것이니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하였으나, 당시 수침은 이미 늙고 병들어 있었다. 답서에,

“정경<sup>程瓊</sup>이 문입<sup>文立</sup>을 천거하지 않은 것은, 그가 성품이 겸손한데다 나이가 80이나 되어 당세의 기대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대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 하고, 끝내 나오지 않았다. 이에 이르러 병이 위독해지자 그의 아들에게 훈계해 타 이르고 또 염습 치상<sup>斂葬治喪</sup>에 대한 예절을 일러주고 나서,

“죽고 사는 것은 하나의 상리<sup>常理</sup>이다. 한번 돌아감을 만난다는 것은 실상 쉬운 일이다.”

하고, 드디어 옷을 갈아입고 잠자리에 들더니 그대로 졸<sup>卒</sup>하였다. 집이 가난하여 장사를 치를 수 없었는데 때마침 간원이 아뢰기를,

“성수침에게 처음에 유일로 관직을 제수했으나 병을 핑계하여 사양하였고, 끝까지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는 문을 닫고 평소 자신이 지켜온 도<sup>道</sup>를 찾으며 옛 도를 힘써

행하다가 72세의 나이로 끝내 곤궁과 검약 속에 죽었으니 이는 한 나라의 훌륭한 선비이며 당대의 일민(逸民)이라고 하겠습니까. 마땅히 훌륭한(逸典)을 베껴서 국가의 어진 이를 높이고 노인을 존경하는 뜻을 보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그 말을 가상하게 받아들여 곧바로 관(擢) 1부(部)를 하사하고 이어서 본도에 명하여 쌀과 콩도 필요한 만큼 지급하게 하고 역꾼도 내어서 장례 제구를 갖추어 돕게 하였다.

병인년(2711)에 상이 경륜에 밝고 품행을 잘 닦은 선비를 불러들이려고 할 때 수침을 생각하고 특별히 추장(追獎)케 하여 중직(中直) 대부(大夫) 사헌부(司憲府) 집의를 증직하니 모두 근세에 없었던 은전(恩典)이었다.

그는 사람 됨됨이가 타고난 재질이 매우 높았으며 성실하고 중후하고 너그러운데다 현철한 키에 풍골(風骨)이 빼어나고 풍격 또한 우뚝하여 보기에다 충만한 데가 있어 누구라도 덕성 있는 군자임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뜻은 충담(忠澹)함을 숭상하고 기호(嗜好)하는 것이 없었으며, 그의 학문은 자기 몸을 돌이켜 가장 절실한 것을 구하는 것으로서 급무를 삼았다. 일찍이 학자들에게 이르기를 ‘도(道)란 큰 길과 같다는 성인의 가르침이 분명한데 어찌 알기 어렵다 하겠는가. 가장 고귀한 것은 힘써 배워 그 지식을 실행하는 것이다. 언어만의 학문은 일을 이룰 수 없다. 공자(孔子)의 문하에 충명하고 영특한 사람이 많았지만 끝내 그 도를 전한 자는 노둔한 증자(曾子)뿐이었다.’ 하고, 또 항상 《소학(小學)》을 사람들에게 권하며, “수신(修身)의 대요가 모두 이 책에 있다. 이 글을 읽지 않으면 집에서 어떻게 아버지를 섬기며 조정에 나아가서는 어떻게 임금을 섬기겠는가?”

하였다. 평상시 일용 사물에는 담박한 풍모로 자신을 지키고 비단옷 같은 것은 몸에 걸치지도 않았으며, 보통 사람의 심정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것도 그는 또한 낙으로 삼았다. 친척 중에 곤궁한 자가 있으면 재산을 기울여서 구원해 주었고 벗과 형제들에게 노비까지 나누어 주면서도 조금도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남의 한 가지 선(善)한 일을 들으면 언제나 감탄하고 사모하며 잊지 않았고, 남의 과실을 보면 곧바로 배척하지 않고 은미한 뜻만을 보여 자신이 스스로 깨닫게 하였다. 언어나 처사에 있어서 규각(圭角)이 드러나게 하지 않았지만 의리(義理)로 결단하는 데 이르러서는 극히 엄격한 바가 있어서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어떤 서생(書生)이 자기 선조의 묘갈을 써달라고 청하자 수침은 잠자코 훑어 보더니 얼마 후에, “이것은 이계전(李季淹)이 지은 것이다.” 하였다. 그가 ‘계전은 어떤 사람입

니까?’ 하고 물으니, 수침이 답하기를, “허후許詡의 전기[傳]에 있는 사람이다.” 하니, 그 서생이 비로소 깨닫고, 감히 다시 청하지 못했으니 그가 남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엄격함이 이와 같았다. 그의 미간眉間만 바라보면 비린鬚鬢한 마음이 자연히 사라지는지라 어진이나 불초한 사람이나간에 그를 공경하고 사모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도서圖書가 가득한 방에 우뚝하게 혼자 거처하면서 세상일에는 아무 뜻이 없는 것 같았지만 시사에 대한 격분과 나라에 대한 걱정은 모두가 그의 진정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성격상 술을 좋아하지는 않았으나 약간 취하면 언제나 높이 읊조렸는데 맑음 음운音韻이 집안에 가득하여 화기가 감돌았다. 문장을 경시하고 뜻을 두지 않았으나 산중생활을 읊조려 묘사하면 그 시의 뜻이 유원幽遠하여 조전彫篆(2712) 이나 일삼는 자들의 미칠 바가 아니었다. 평소에 도 정절陶靖節(2713) 의 사람됨을 열모悅慕하여 그의 시를 즐겨 보았으니, 시대를 초월하여 뭔가 서로 느끼는 뜻이 있는 듯하였다. 일찍이 자찬自贊하기를, ‘야원 그 얼굴에 풍모 또한 고고高古하다 마흔이 넘도록 아직 한포의 순수한 그 본심 평생 어김 없으라.’

하였다. 김안국金安國이 어떤 사람과 수침의 사람됨을 논할 때였다.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바른 도를 지킨다[守死善道]는 말에 해당할 것이다.”

하니, 안국이 “그뿐이겠는가.” 하였고, 상진은 항상 사람들에게 “중옥仲玉은 덕을 갖춘 선비다.” 하였다.

명나라 급사중給事中 위시량魏時亮이 본국의 조서詔書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 나라 인물에 대하여 듣고 싶어하자, 수침의 행의行義를 조목조목 써 주었다. 이렇듯 그는 일세에 추중推重을 받았고 아무도 이에 이의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니, 일민이라 일컬어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다. 그는 젊었을 때 조식曹植과 벗이었는데, 그가 올린 사직소辭職疏의 말씨가 너무 격렬한 것을 보고,

“오랫동안 건중建仲(2714) 을 만나지 못하였는데 이미 원활해졌는가 했더니 지금 이소에 가시가 너무 드러난 것을 보니 아직도 그 공부가 원숙하지 못한 듯하니 실천의 진도를 알 것 같다.”

하였다. 파평坡平 땅에 살았기 때문에 호를 파산청은坡山淸隱이라고 했다가 그 뒤 우계한민牛溪閑民이라고 고치고서,

“나를 청은淸隱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사림에서 그래도 청송 선생淸松先生이라고 불렀다. 그의 필적 또한 고아古雅

하여 세상에서 진귀하게 여겼다. 아들 성훈成渾은 가훈을 받아 선친의 뜻을 잘 이었고 학문에 힘써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효행도 있어 지금 행의行義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 『홍재전서弘齋全書』 제20권, 제문祭文 2

정조대왕(正祖大王, 1752~1800)의 시문詩文을 규장각奎章閣에서 편찬하고 간행한 책.

파산서원坡山書院 치제문

진유가 집성하니 / 眞儒集成

한 문하에 모두 모여들었네 / 一門咸萃

시례는 가학으로 전하였고 / 詩禮家傳

도학은 대대로 이어왔네 / 道學世類

제기를 갖추고 아울러 술을 드리니 / 籩豆并設

묘우廟宇의 모습 엄숙하네 / 廟貌翼翼

박한 시속에 공경스러운 마음을 일으키겠으니 / 薄俗起敬

지나는 사람이 문득 경의를 표하네 / 行者輒式

서원이 있는 경내에 들어가 행차를 멈추고 / 入境駐輦

관원을 시켜 대신 잔을 드리게 하네 / 佯來替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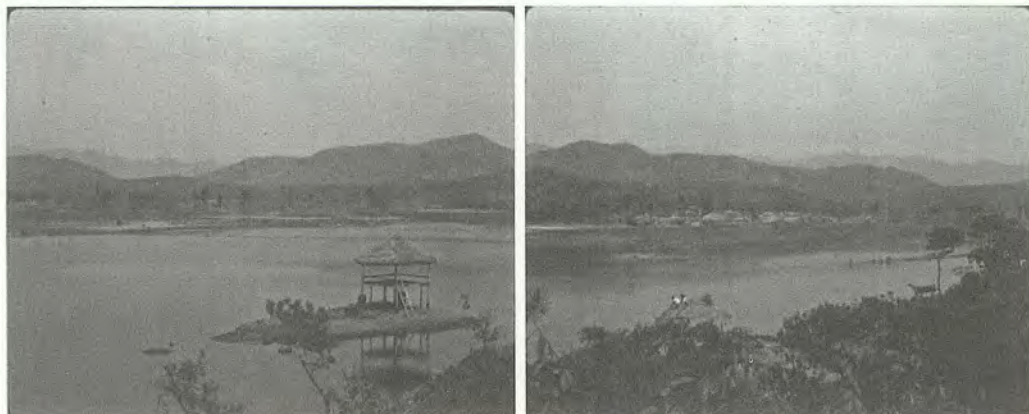


## 청운정 (淸隱亭)터

- 소재지 : 파주시 금촌2동 1018 새금초등학교 내
- 건립시기 : 조선 17세기 후반
- 건립주체 : 윤선거(尹宣舉)

### 1. 위치와 연혁

조선조 예종의 첫 번째 왕비 장순왕후 능인 공릉의 이름을 따서 조리읍 봉일천 앞을 흐르는 하천을 공릉천이라 하였다. 이 공릉천은 금촌으로 흐르며 금성천<sup>金聖川</sup>이라고도 불리었는데 경치가 아름답고 평화로워 예부터 정자가 있을 만한 곳이었다.



1969년의 금성천 모습 (사진제공 : 김현국)

이 금성천을 바라보며 조선 중기 성리학의 대가 윤증을 키워낸 그의 아버지 윤선거尹孝擧가 이곳에 정자를 세우고 인근의 교하향교 유생들과 함께 학문을 논하고 인재를 육성하였다고 한다. 그가 지었다는 정자는 청은정淸隱亭이라고 하는데 낮은 구릉의 남쪽 기슭에 공릉천을 바라보고 있었다.

윤선거 사후에 이 자리에 1683년(숙종 9)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그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서원을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sup>21)</sup> 1695년에 ‘신곡(新谷)’이라고 사액되어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그 후 1868년(고종 5)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어 복원하지 못하였으며, 소장 전적은 향교로 헌납하였다.<sup>22)</sup>

그 자리에는 한글학자 정태진의 생가가 있었다가 다시 없어지고 현재는 새금초등학교가 들어서 있어 옛 배움터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교정에 오래묵은 느티나무만이 이곳이 신곡서원터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1) 파주시, 파주군지 中, p.225

22) 신곡서원 [新谷書院]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신곡서원터에 지금은 새금초등학교가 들어섰고 교정엔 오래된 느티나무만 남아있다.



신곡서원 앞 청은정터에서 바라보는 공릉천(금성천)의 전경

## 2. 관련인물

### 윤선거 尹宣舉

1610년(광해군 2)~1669년(현종 10)

조선 중기의 학자로 본관은 파평 坡平이며 자는 길보 吉甫, 호는 미촌 美村·노서 魯西·산천재 山泉齋이다. 아버지는 대사간 大司諫 황焯이며, 어머니는 창녕 성씨 昌寧成氏로 혼 渾의 딸이다. 문거 文舉의 아우이며, 증 拯의 아버지다.

김집 金集의 문인으로 1633년(인조 11) 식년문과에 형 문거와 함께 급제하였다. 1636년 청나라의 사신이 입국하자 성균관의 유생들을 규합하여 사신의 목을 베어 대의를 밝힐 것을 주청하였다. 그해 12월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가족과 함께 강화도로 피신하였다. 이듬해 강화도가 함락되자 처 이씨가 자결하였으나 평민의 복장으로 탈출하였다.

1651년(효종 2) 이래 사헌부지평 司憲府持平·장령 掌令 등이 제수되었으나, 강화도에서 대의를 지켜 죽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끝내 취임하지 않았다. 김집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성리학 예학 禮學에 잠심하였다. 송시열이 경전주해 經傳註解 문제로 윤희 尹縑와 사이가 나빠지자, 평소 윤희와 친교가 깊었고 그의 재질을 아끼는 마음에서 변호하는 태도를 취하다가 교분이 두터웠던 송시열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었다. 이것이 뒤에 노소 분파의 한 계기가 되었다. 유계 兪燾와 함께 저술한 『가례원류 家禮源流』, 『후천도설 後天圖說』 및 이에 관하여 유계와 논변한 편지를 비롯한 많은 저술을 남겼다. 영의정 領議政에 추증되었으며, 영춘의 송파서원 松坡書院, 영광의 용암사 龍巖祠, 노성의 노강서원 魯岡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노서유고』 26권이 있다. 시호는 문경 文敬이다. 묘는 탄현면 법흥리에 있다.

## 3. 관련자료

### ● 『대동지지 大東地志』

【사원】 신곡서원 新谷書院 숙종 계해년에 세웠으며,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윤선거 尹宣舉 자는 길보 吉甫, 호는 노서 魯西인데, 파평 사람으로 윤희 尹縑의 아들이다. 벼슬은 집의에 이르렀고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경 文敬이다.

● 『우재집 迂齋集』, 조지겸(趙持謙, 1639~1685)

신곡서원新谷書院을 세우게 해 줄 것을 청하는 내용으로 교하交河 유생들을 대신해 지은 상소

迂齋集卷之四, 疏 代交河儒生請立新谷書院疏

伏以後學之於宗儒。其生也。盡尊事之義。其死也。致追慕之誠。聖王之於賢士。於其存。隆聘召之禮。於其亡。加崇報之典。是以古者鄉先王沒。而祭之於社。而後世人主。亦莫不以此爲重。洪惟我祖宗尊尙儒術。夙出千古。其於表章之方。靡不修明。先正所居之鄉。皆許立祠而祀。使人得有所觀感。豈不盛矣哉。臣等竊惟近故贈吏曹參議臣尹宣舉。挺醇儒之姿。抱王佐之具。沈晦巖穴。以終其身。而其言論。足以風厲乎衰世。其德行。足以矜式乎頽俗。其學問之篤。配147\_467c前賢而無媿。其節義之正。扶常經於將墜。臣等蒙陋。何足以揣摩形容。而請以得於親炙與夫人所見知者。略陳於冕旒之下。仍請崇報之典焉。宣舉卽故大司諫臣煌之子。而故儒臣文簡公成渾之外孫也。性質敦確。論議正直。自游泮宮。已有盛名。當丙子春。與同志之士。抗論大義。請斬虜使。冬入江都。又上書分司。責其儉安之罪。時人比之於陳少陽。經亂以後。絕意世事。從事於性理之學。時父煌以斥和臣。得罪於朝。廢處深峽。溫清之暇<sup>001</sup>。專精研究。聚會士友。相與麗澤。其所以克治之方。進修之法。一以古聖賢遺訓147\_467d爲標準。潛心以玩索。反躬以踐實。功程刻厲。規模謹密。存省乎內者。不懈須臾。檢束乎外者。動遵繩墨。至於威儀折旋之間。莊毅嚴肅。有壁立千仞底氣象。事親極其愛敬。事兄盡其悌友。待宗戚以睦姻。接鄉黨以溫恭。教誨子弟。率循規矩。講授門生。多所成就。日用事爲。一出誠實。以及細行。靡有不至。入其庭戶。無非可以爲法者。一家從化。四隣悅服。以致鄉俗丕變。遠方向慕。運用之跡。雖不可見。而其積於中而發於外。行於身而孚於物者。斯可驗矣。平生固窮淡然。無累於外物。褐衣不完。疏糲屢空。處之晏如。樂而忘憂。147\_468a邑宰有或問遺。雖微細之物。率麾而去之。於此亦可見其刻苦之節也。雅以禮自飭。嘗撫儀禮經傳。著成一書。節文儀則。纖悉畢備。儘有功於禮門。而尤深於易學。沈思後天之義。作爲圖說。闡明奧旨。多有發先儒之未解者。於此亦可見其探蹟之功也。孝廟在祚。奮發大志。招延草野之士。聞宜舉之

賢。累降禮召。思欲共濟大計。而宣舉輒以臨難不死爲辭。及至經年不許。儻勉至京。累章陳悃。聞有士服入對之命。辭不敢當。卽爲留疏退歸。其後徵召不置。不復出脚。至于先朝。思注采深。除命絡繹。而確乎其守。終不憚<sup>147\_468b</sup>然。蓋自以身經大變。思欲潛晦遁藏。要以自靖其志。守節求仁而善其道。君父至誠敦勉。親友交相勸起。而卒不少渝。其於出處之義。講之有素矣。迨其季年。德彌尊而行彌高。四方望之。若頹波中砥柱。羽毛中祥鸞<sup>147\_468c</sup>。喪逝之後。先王中朝傷歎。恨其不得一見。追加哀贈。官庀喪葬。士林相弔。莫不涕洟。弟子持服。幾數百人。雖其道不行時。埋沒於蓬華之下。而亦可謂生榮死哀者矣。成渾道學。乃是吾東方法門正宗。宣舉之學。實出於外家之傳。而又受業於故文敬公臣金集之門。得聞其採約親切之旨。則其淵源之遠。<sup>147\_468c</sup>門路之正。近世學者莫之或先。而其篤實之功。自得之妙。有非人所企及。可以壽斯文無窮之傳。若夫浮雲萬鍾。邈世獨立。堅守一節。無有怨悔。卽是善繼父堯之志。而餘風遺韻。可以立懦夫於百世矣。惟其忠愛之誠。只蘊於一心。經濟之略。未見於當時。斯乃忠志之士所共悲恨者也。宣舉之往來於臣等所居之地。殆五十餘年矣。臣等出入游從。不爲不久。覲德慕義。誠不淺眇。及其沒而又葬於斯。金玉之音。不可得以復聞矣。山岳之象。不可得以復見矣。瞻衣冠之藏。想杖屨之跡。安仰之痛。愈久愈深。曾自十餘年前。<sup>147\_468d</sup>邑章甫。不謀同辭。買基鳩村。欲立揭虔之所。以寓追慕之思。以致崇奉之義。遠近協力。事幾就緒。不幸向者權奸擅朝。凡於士林公議。無不攻斥搆毀。故臣等畏懼縮手。不敢有所經營。未免怒然而中輟矣。天相吾道。值此更化之日。近復會議。亟欲舉前日已始之役。修斯文欠缺之典。而伏聞朝家曾有命令。凡有新建書院。必得明旨而乃行。茲敢相率而來伏闕外。仰籲於宸嚴之聽。伏乞聖上體祖宗好賢之誠。鑑國朝已行之章。俯察宣舉道學節行。允爲百世之師表。臣等所言。無一毫阿好之私。特命禮官。許<sup>147\_469a</sup>令立祠。則非但臣等得以盡尊師之義。伸宿昔之至願。其於聖朝崇儒重道之方。亦豈少補哉。臣等無任隕越激切祈懇之至。

- 『명재선생유고明齋先生遺稿』 卷之二十, 書, [與朴泰輔士元 六月十日], 尹拯定便還。又得手字慰豁無已。第樓庭樵汲之散。亦一厄也。自此兩家之憂。君獨當之。令人耿耿。然困衡動忍。隨處有工夫。當有以處之。勿以事撓吾中則可矣。交

院祭文。眞實平穩。其中影衾無慙。學習成法等句。135\_451c尤說道他人之所難道。感誦不容喻。昨強求苗脈之說。亦不能平心之失也。見君書而後方覺其非。與舍弟共戒之。非少幸也。本源未正。每爲私意之勝如此。亦可笑也。六月十日。

명재유고 제20권, 서훈, 박태보 사원에게 보낸 6월 10일

정산에서 돌아온 인편에게서 또 그대가 보낸 편지를 받고 위안되는 마음 한량없습니다. 다만 누원樓院에 있는 백씨 댁의 나무하고 물 걷는 하인들이 흠어진 것 또한 하나의 횡액입니다. 이제부터는 두 집의 근심을 그대 혼자 담당할 것이니, 염려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괴롭고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경각심을 일으키고 성격을 견인堅忍하게 하는 것이니, 부딪치는 일마다 공부로 삼는다면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교하交河 신곡서원新谷書院의 제문은 진실되고 평이하며, 그 내용 중에 “영금影衾에 부끄럽지 않다.”와 “배우고 익혀 법을 이루었다.” 등의 글귀는 특히 다른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했으니, 감격스러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꼬투리를 억지로 찾는다고 한 말 또한 마음을 평정하지 못한 잘못입니다. 그대의 편지를 본 뒤에야 그 잘못을 깨닫고 아우와 경계를 삼았으니 작지 않은 다행입니다. 성정性情의 본원이 바르지 않아 매번 이처럼 사의私意가 공심公心에 앞서니, 이 또한 우습습니다.

● 『노서선생유고부록魯西先生遺稿附錄』 下, [잡저雜著], 윤선거(尹宣舉 1610~1669)

신곡서원봉안제문新谷書院奉安祭文 박태상朴泰尙

於維先生。天挺碩姿。粵從非弁。聖賢自期。太學聲名。衆推林宗。兩疏氣節。世稱陳東。丙甲再變。陰陽易位。時則不可。反求素履。深哀舊傳。得自庭趨。賢師畏友。服藥佩符。眞知力踐。日造誠明。充養旣厚。德器凝成。望之山立。測之海涵。簞瓢自樂。影衾無慙。旌招屢至。白駒難繫。道若可行。志豈忘世。約束鄉社。源流禮書。發揮所蘊。此特緒餘。講習成法。惠我後學。進退大義。獨扶人極。日星燦然。丹青炳如。質之百代。孰云可誣。念惟茲邦。遺澤孔邇。杖屨所憩。丘墓所寄。士林同辭。建祠妥靈。用寓景慕。永樹風聲。事旣告完。敬薦芬苾。不昧斯存。尙冀降格。

● 『노서선생유고부록魯西先生遺稿附錄』 下 [잡저雜著]

신곡서원사액제문新谷書院賜額祭文。 지제교최규서제진知製教崔奎瑞製進。

維崇禎歲次乙亥十一月己未朔二十六日甲申。國王遣臣禮曹佐郎朴縝。諭祭于故贈參議尹宣舉之靈。昔在宣廟。厥有兩賢。丕闡吾道。照後光前。惟卿是承。有的其傳。宅相坡山。私淑文成。門路旣正。積累工程。程門敬字。張氏禮學。旣恭而安。能約於博。莊嚴中正。篤實光輝。允矣君子。知德者誰。簞瓢陋巷。所樂不移。兩朝旌招。終執謙沖。斂此至道。以賁其躬。春秋大義。隱而采彰。君民素志。處猶不忘。尹穀之喻。義著昭訓。儒服之召。事曠前聞。聖祖嘉予。此略可見。嗟卿爲學。務在實踐。登高自卑。由內及外。鄉隣化德。後學有賴。以今觀卿。此功爲大。眷茲西河。衣冠是藏。衿紳寓慕。不啻羹牆。於焉尸祝。爲之歸依。有錫新扁。庸煥柱楣。緬懷風規。慨焉嗟咨。爰具牲醴。奠以忱辭。卿靈不昧。尚其歆茲。

魯西先生遺稿附錄下

● 『간제집卷之七』, 최규서(崔奎瑞, 1650~1735)

응제록應製錄

교하신곡서원交河新谷書院 문경공윤선거향文敬公尹宣舉享 사액제문賜額祭文

昔在宣廟。厥有兩賢。丕闡吾道。詔後光前。維卿是承。有的其傳。宅相坡山。私淑文成。門路旣正。積累工程。程門敬字。張氏禮學。旣恭而安。能約於博。莊嚴中正。篤實光輝。允矣君子。知德者誰。簞瓢陋巷。所樂不移。兩朝旌招。終執謙沖。斂此至道。以賁其窮。春秋大義。隱而采彰。君民素志。處猶不忘。尹穀之喻。義著昭訓。儒服之召。事曠前聞。聖祖嘉乃。此略可見。嗟卿爲學。務在實踐。登高自卑。由內及外。鄉隣化德。後學有賴。以今觀卿。此功爲大。瞻茲西河。衣冠是藏。衿紳寓慕。不啻羹牆。於焉尸祝。爲之歸依。有錫新扁。用煥柱楣。緬懷風規。慨焉嗟咨。爰具牲醴。奠以忱辭。卿靈不昧。尚其歆茲。



## 이사정(二泗亭)터

- 소재지 : 파주읍 백석5리 정자말길
- 건립시기 : 조선시대 18세기 초
- 건립주체 : 신태동辛泰東

### 1. 위치와 주위환경

이사정二泗亭은 광탄(넓은여울)천과 장지산 백경수 두 물줄기가 합쳐지는 곳에 있다고 해서 이사정이라 하였다. 1984년도 편찬된 『파주군사坡州郡史』의 유적遺蹟편에서는 이사정이 “주내에서 남쪽 10리, 응암鷹岩과 현암絃岩 사이에 있었다. 현령 신태동(辛泰東 호는 백석百石)이 건축하였고 이수二水가 합하는 곳이므로 이사二泗라 명명하였다. 지금도 터가 남아 있는데 정자동亭子洞이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1995년 발간된 『파주군지坡州郡誌』<sup>23)</sup>엔 이사정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파주읍 백석리에 위치하였다 한다. 신태동辛泰東이 퇴관 후 아들 신치복이 파주목사로 있던 때에, 백석산 남맥 절벽 아래에 정자를 세워 고령산과 장지산에서 흐르는 물이 합류한다 하여 이사정이라 이름 짓고 이곳에서 여생을 보냈다. 지금도 백석리에는 정자동이라는 자연부락 명칭이 남아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이사정은 고령산과 장지산에서 흐르는 물이 합류하여 넓은 여울 즉 광탄이 흐르는 파주읍 백석5리 정자마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산과 장지산에서 흐르는 물은 북쪽 방축리와 남쪽 창만리에서 합류하여 부곡리에 이어 백석리를 지난

23) 파주시, 『파주군지坡州郡誌』, 중권(中卷), p.222

다. 그 물줄기가 예전엔 더 넓어 이사정 정자가 있는 마을입구까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정자터에서는 광탄 물줄기는 볼 수가 없다.



백석리 정자마을 앞을 흐르는 광탄 물줄기



이사정 우물터



이사정 정자터

## 2. 관련인물과 건립 시기

신태동(辛泰東:1659~1729) 조선중기 문신으로 본관은 영월<sup>寧越</sup>이며 호는 백석이며 사헌부감찰<sup>司憲府監察</sup>이었으며 용담현령<sup>龍潭縣令</sup>을 지냈으며 사후에 이조 참판에 추증 되었으며 조리읍 등원리에 묘가 있다.

신치복(辛致復1680~1754)의 호는 서포<sup>西圃</sup>로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지돈령부사<sup>知敦寧府事</sup>지냈으

며 1718년(숙종44)년 정선군수로 부임하여 6년동안 지냈다. 파주목사를 역임했다. 신치복이 파주목사로 온 사실은 『파주군사坡州郡史』의 「파주목사坡州牧使 선생안先生案」<sup>24)</sup>에서 확인되며, 파주목사로 부임한 때는 1726년(영조22년)이다. 이 때 건립된 이사정이 언제 소멸 되었는지는 기록에 없어 알 수 없다. 신치복의 묘는 문산읍 이천리에 있다.

### 3. 관련자료

이사정에 관련된 자료는 아니지만 아래의 이수정二水亭은 장포(현재 월릉면 내포리 장포마을=장계) 포구 위에 있던 정자로 이사정과는 위치와 존립 시기는 다르지만 백석지천인 광탄수 물줄기를 읊고 있어 여기에 옮겨본다.

- 『지천집芝川集』, 지천芝川 황정욱(黃廷昱, 1532~1607) 1632년 간행

二水亭 (이수정)

白石之川廣灘水 (백석지천광탄수) 백석지천인 광탄수 물줄기는

合歸長浦洛河潭 (합귀장포락하혼) 장포에서 합류해 낙하도로 흘러간다.

欲將清濁皆呑有 (욕장청탁개오유) 세상에 깨끗한물, 흙탕물 어찌 없으려면

却恐泥沙汚了人 (각공니사오료인) 두려워라 진흙탕 속에서 이생이 끝날까 봐

裁到門前須揭厲 (재도문전수계려) 문전에 도착해 잠깐 어찌 할까 망설이는데

時憑亭上塗澆津 (시빙정상완도진) 정자위에서 읊어대네 진흙탕에 덮인 포구

路人只見分流異 (로인지견분류이) 길가는 사람들은 다만 다른 물 줄기라 하나

未省汪洋度量均 (미성왕양도량균) 넓은 바다로 이르면 함께 섞임을 미쳐 모르네

지은이 황정욱(1532~1607)은 조선중기의 문신. 시인이며 호는 지천芝川이다. 영의정 황의홍(黃) 현손으로 1558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대제학에 이어 예조판서. 병조판서등을 역임 하였다. 문집으로 《지천집芝川集》이 있다.

24) 파주군사편찬위원회, 『파주군사坡州郡史』, 1984, p.146

## 만성정 (晩醒亭)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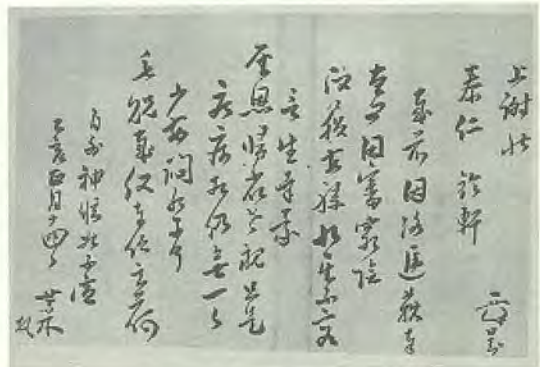
- 소재지 : 광탄면 창만리
- 건립시기 : 조선 17세기 후반(1687년)
- 건립주체 : 박세채

### 1. 위치와 주위환경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의 행장을 보면 ‘숙종 13 1687 정묘 康熙 26 57 1월, 虹變으로 인하여 소명이 내렸으나 사양하다. ○ 3월, 楊州에서 坡州 廣灘 晩醒亭으로 이거하다. ‘南溪’의 호가 이에 유래하다.’라는 내용에서 그가 1687년에 양주에서 파주 광탄 만성정으로 이거 해왔고 ‘남계’라는 호가 이곳의 위치를 보고 지었다는 걸 알 수 있다.



해동지도에 남계영당이 광탄물줄기 위에 표기되어 있다.



박세채의 친필

만성정이 있었던 곳이 광탄의 어느 지역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지금 광탄 넓은 여울이 흐르는 북쪽 위치 부곡리에는 박세채 집안 반남박씨 묘역이 모여있고, 몇십 년 전까지 반남박씨 집성촌이 있었으며 해동지도 등 옛지도에 ‘남계영당’이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곡리가 유력해 보이지만 정확한 위치가 기록된 문헌을 찾지 못해 다만 추정만 해 볼 뿐이다.

## 2. 관련인물과 건립시기

박세채는 만성정을 건립하면서 상량문을 썼고 그에 따라 상량의 은율적 감정을 넣어 시를 짓기도 했다. 건립시기는 박세채가 양주 금곡에서 이주한 시기로 숙종13년(1687)으로 볼 수 있고, 박세채가 이곳에 은둔한 것은 그의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박세채 『남계집南溪集』에 의하면 「만성정신거상량문晚醒亭新居上梁文」에 쓰인 글의 제목이 그 근거가 됨을 살펴 보고자 한다.

박세채朴世采가 쓴 만성정신거상량문晚醒亭新居上梁文

伏願上梁之後 山林引興 理義悅心 左圖右書 不恨道喪而聖遠 東阡北陌  
佇見國泰而民安 徵萬一肯堂之休 倘二三同之作 克新耳目 永鎮軒屏

兒郎偉拋梁南(아랑위포랑남)  
更有高峯似拱極(경유고봉사공극)  
兒郎偉拋梁西(아랑위포랑서)  
極目神州隴外是(극목신주릉외시)  
兒郎偉拋梁北(아랑위포랑북)  
遙知直背乃朝路(요지직배내조로)  
兒郎偉拋梁上(아랑위포랑상)  
苟能肅然事我天(구능숙연사아천)  
兒郎偉拋梁下(아랑위포랑하)  
衰羸本不崇躬耕(쇠리본부승궁경)

前麓隆隆正面南(전록릉릉정면남)  
旁人漫說是孤南(방인만설시고남)  
右壟蜿蜿交走西(우릉원원교주서)  
那將好音願歸西(나장호음원귀서)  
後丘巖巖峙家北(후구의의치가북)  
周孔幾時能學北(주공기시능학북)  
仰瞻赫赫象垂上(양담혁혁상수상)  
豈獨蕉蘆裴几上(기독초로배궤상)  
俯臨臚臚田鋪下(부림무무전포하)  
好擬羲皇北窓下(호의의황북창하)

박세채朴世采 (1631년 인조9년~1695년 숙종21) 조선중기의 학자이자. 문신으로 본관은 반남潘南이며 호는 현석玄石. 남계南溪이다. 부친은 흥문관교리의猗이며, 모친은 신흘申欽의 딸이다. 증조부 응복應福은 대사헌, 조부는 동량東亮은 형조판서를 지냈으며, 『사변록思辨錄』을 저술한 박세당朴世堂과 박태유朴泰維·박태보朴泰輔 등은 당내간의 친족이다. 또한 송시열宋時烈의 손자 순석淳錫은 그의 사위이다. 그의 이러한 가계는 당시 정치 현실을 말해 주고 있다. 1659년(효종10년에 익위사세마翊衛司洗馬가 되었는데 5월에 효종이 죽자 자의대비慈懿大妃위복상을 거론되어 3년설을 주장하여 숙종이 즉위하자 관직삭탈 당하여 유배당하였다. 다시 숙종6년에 등용되어 공조참판 대사헌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1684년 숙종10년 회니(懷尼)의 분쟁을 계기로 황극당평론皇極黨平論을 발표하여 파당적 대립을 막으려 하였으나 소론편에 서게 된다. 1694년 숙종20년 갑술년 옥사 이후에 박세채는 노론과 서론의 영도자가 되어 우의정 좌의정을 두루 거치며 소론의 영도자가 되었다. 대표적 저술로는 범학전편<範學全編>, 시경요의<詩經要義>, 학법총설<學法總說>, <양명학변>, 남계수필록<南溪隨筆錄>, 등이 있다.

“박세채는 1694년 淸나라 사신이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 상차上箚 하면서 계치록稽古錄 계치록을 붙여 올리고 출성하여 파주로 돌아왔다. 그후 1695년2월 추하여 4월 장단長端 초현산招賢山에 장사 지냈고, 그의 묘는 1705년 개성 평산平山 면곡綿谷으로 이장 되었다.(行狀 厚齋集권44.朝鮮王朝實錄)

### 3. 관련자료

#### ● 「남계서당학규南溪書堂學規」

17세기 예송禮訟문제에 기년설基年說을 주장하면서 서인西人측의 대표적 이론가였던 박세채는 1683년 노소老少 분열 이후 잦은 퇴거를 겪게 되고 이때인 을축년(1685)에 「평산구봉서당기平山九峰書堂記」를, 기사년(1689)에는 「남계서당학규南溪書堂學規」를 남기게 된다. 이때(을축년)에 그는 당시 치열하게 전개되던 국내 정쟁 및 대청관계의 문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2개조의 상소를 숙종에게 올렸다.

- 1) 입소지이수정학立齋志以修正學, 2) 념군무이책실효捨羣務以責實效, 3) 진기강이존국체振紀綱以尊國體, 4) 제해막이치민화除害瘼以致民化, 5) 흥상서이려유평興庠序以厲儒風, 6) 남간쟁이회공문納諫爭以恢公論, 7) 선조교이도세자善早教以道世子, 8) 혁구폐이정왕정革久弊以定王政,

9) 득현재이도공리得賢材以圖共理, 10) 선장수이중군사選將帥以重軍事, 11) 신수재이선성택  
 慎守宰以宣聖澤, 12) 분대의이복흥수奮大義以復凶讐

이중에서 서당과 관련된 조목은 ‘제해막이치민화除害瘼以致民化’, ‘홍상서이려유평典庠序  
 以厲儒風’, ‘득현재이도공리得賢材以圖共理’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이러한 일련의  
 구상은 교육을 통해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자파세력의 확  
 고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구봉서당의 설립 전말을 말하면서,  
 유생 이정석李廷碩이 관동冠童 수십인을 가르치던 중 그의 요청에 의해 향내의 유림들  
 과 뜻을 모아 서당을 설립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설립목적은 중인衆人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학자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南溪先生文集』卷67 「平山九峰書堂記」)

「남계서당학규南溪書堂學規」에서는 서당에 관한 좀더 자세한 소견을 보여 준다. 이는  
 기사환국(己巳換局, 1689)으로 인하여 그가 향리로 돌아온 후 제정한 것으로, 몇 항목의  
 요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서당의 입학은 독지향학篤志向學한 자로서 늘 내독來讀하는 자를 허입許入하되 현족  
 미품顯族微品을 가리지 않는다.
- 2) 거처에는 반드시 연장자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하고 10세 이상 연장자가 출입할  
 때 소자少者는 반드시 기립한다.
- 3) 언어는 반드시 신중하고 예법과 문자에 관한 말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 음설패  
 란淫說悖亂하거나 신괴神怪한 일들은 말하지 않는다. 타인의 과오나 조정주현朝廷州縣  
 의 득실은 말하지 않는다.
- 4) 성현의 성리서가 아니면 피람披覽할 수 없다. 다만 사서史書는 열람할 수 있으나  
 이단異端 및 과거문자科擧文字는 일체 입당入堂을 허락하지 않는다.
- 5) 사장師長이 강당에 있으면 복상복服上服하여 앞에 나아가 배례拜禮하고 사장은 좌상  
 座上에서 부수俯手하여 답한다.

이 학규學規는 울곡의 「隱屏精舍學規」와 「文憲書院學規」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남계서당이 향촌사회에서 담당하고자 한 역할이란 그 규모와 범위만 축소될 뿐, 종  
 래 서원이 수행했던 역할을 그대로 모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남계서당이 지향한 목표의 하나는 면·리 단위 향촌에까지 상하지분上下之分을 포함  
 한 예법(2, 3, 5)과 성리학(4)의 전파를 도모한 것이었고, 나아가서는 향촌지배층의 육

성을 꺾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화黨禍로 인하여 잠시 향리에 은거한 박세채가 서당의 설립과 운영에 진력한 것은 향후의 향촌사회 장악과 지배층 육성이란 정치적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sup>25)</sup>

박세채가 향촌지배층의 육성은 은거지인 향촌사회의 문학적 향상을 정치적 불우한 기간에 축적하는 동시에 자연스런 교감으로 향촌에서 정적들의 모함과 탄핵을 멀리 할 수 있는 공간이며 재충전할 수 있는 정자는 그의 은거지로 위안을 얻은 곳이기도 하다.

조선중기의 정자는 문인들의 사교 공간으로 문벌귀족의 단순한 여기(藝技)가 아닌 문학적 진지성 내지는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엄숙하고도 도학적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개성적인 시풍과 감수성이 자유분방 하면서도 엄격한 고위관료적들의 위락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진숙

2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8세기 서당연구」 정순우 박사학위논문, 1985, 39-42쪽.



## 은행정(銀杏亭)터

- 소재지 : 파주시 창만리 산101-2, 만장산 북쪽 끝자락
- 건립시기 : 조선시대 15세기 중반 (1439년경)
- 건립주체 : 황보인

### 1. 위치와 주위환경

은행정銀杏亭은 조선 초기의 문신 황보인(皇甫仁, 1387~1453)과 관련된 정자이다. 황보인은 파주 광탄면 창만리에서 출생하였으며 묘는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에 있다. 영천 황보씨 문중의 충정공 지봉 선생 실기에 의하면 황보인이 1439년(세종 21년) 53세에 고향 선산으로 퇴향해서 후진을 양성하며 거주했다고 한다.<sup>26)</sup> 은행나무가 많은 그 곳 마을에 정자를 짓고 은행정이라 이름지었다고 한다.

은행정이 있던 자리는 파주문화원에서 펴낸 『파주지명유래와 전설』에 의하면 ‘광탄천 창만리에 있었다. 지봉 황보인이 광탄 어귀 만장산 북맥의 끝머리 집 근처 은행나무가 있는 곳에 정자를 세우고 시와 경치를 즐겼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만장산 북맥의 끝머리에서 마을 주민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이종익씨(창만2리 별만장길40, 71세)가 “예로부터 창만2리는 은행나무가 많아 “은행나무골”로 전해온다.”는 것과 이원희씨(창만3리, 69세)가 “창만리라는 지명은 마을에 곡식이 가득한 창고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 것과 이종철(창만2리, 80세) 씨가 “은행정 정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고 다만 현재 약500년 가량 되는 은행나무만 있다.”는 것이다.

『여지도서』 양주현읍지陽州縣邑誌에도 은행정마을이 남쪽으로 12리에 있다는 기록이

26) 【출처:황보인대종회까페역사란 “충정공지봉선생의실기(實記)】  
<http://www.hwangbo.kr/hwboin.html>

있다.27) 광탄면 창만리는 예전에 양주지역이었다가 파주지역으로 편입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은행정은 만장산 북맥의 끝자락과 은행나무가 많은 곳에 위치했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창만리산 101-2,104-1산자락 끝지점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는 지점이 은행정의 위치로 유력할 것으로 추정된다.

만장산 현장을 답사하여 하천, 산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만장산 북맥의 끝머리, 정자가 있을 만한 곳은 두 곳으로 추정된다.

### ① 창만리 산 98-2, 98-3

문산천의 지류인 비암천과 마장리에서 발원하여 문산천과 만나는 곳, 즉 만장산 북맥의 끝자락 창만리 산 98-2, 98-3



만장산 북맥의 끝자락. 동북쪽에서 바라본 정자위치 추정지역



문산천의 지류인 비암천과 마장리에서 흐르는 물이 만나는 지역으로 만장산 북맥의 끝자락

### ② 창만리 산101-2, 산104-1 북쪽 끝자락

서북쪽을 향하고 있고 좌측으로는 부곡리, 월릉면 덕은리가 눈에 들어오고 정면에는 문산천이 흐르고 있고, 동북쪽으로 금병산, 팔일봉, 고령산과 개명산이 시야에 들어온다. 수령이 약500년 된다는 은행나무가 있는 자리다.

27) 여지도서, 補遺篇(京畿道),陽州縣邑誌, '....銀杏亭里南距十二里'



은행나무가 있는 좌측 서북쪽 지역이 유력한 정자터로 추정된다. (부곡리, 월릉면 덕은리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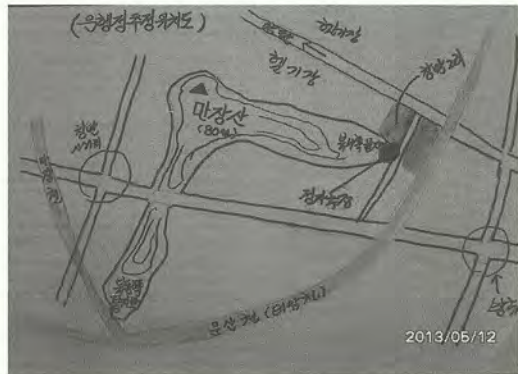


은행정 추정터에서 북쪽 금병산 쪽을 바라본 전경

은행정이 존립해 있었던 기간은 황보인이 1439년(세종 21년) 53세에 낙향해 건립했다고 했고, 1842년~1843년에 편찬된 『경기지』 「파주목읍지」에 ‘은행정은 주 서쪽 15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은행정은 15세기 중반에 건립되었다가, 임진왜란이나 그 이후 병란에 의해 없어진 채로 은행나무만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정터 위치



은행정 추정 위치 약도

## 2. 관련 인물

### ● 황보인 皇甫仁

1387년(고려 우왕 13년)~1453년(단종 1)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영천永川이며 자는 사겸四兼·춘경春卿, 호는 지봉芝峰이다.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임琳의 아들이다. 파주군 광탄면 창만리에서 출생하였다.

문음으로 벼슬에 나가 내자시직장內資寺直長,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역임하였고, 1414년(태종 14) 친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418년(세종 즉위년) 좌정언正言, 1420년 좌헌납獻納을 거쳐 1422년(세종 4) 사재감부정司宰監副正으로서 강원도경차관江原道敬差官으로 파견되어 기근을 구찰한 뒤 귀환하여 장령掌令이 되었다.

1425년 1월 한성소윤漢城少尹으로 재임 중 경상도찰방慶尙道察訪으로 파견되었으며, 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를 거쳐 1428년 집의集議가 되었다. 이듬해 승정원동부대언承政院同副代言으로 발탁되고 좌부대언左副代言을 거쳐 1430년에는 지신사知申事가 되었다. 이듬해 강무행행講武行幸 중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마人馬가 살상되자 이에 대한 문책으로 파면되었다가 같은 해 형조참의刑曹參議로 복직되었고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가 되었다. 1432년 형조좌참판刑曹左參判, 병조우참판兵曹右參判을 역임하였다. 같은 해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사은사謝恩使 정효전鄭孝全의 부사副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433년 하경복, 정흠지, 정초 등과 함께 진서陣書를 찬진撰進하였고, 이듬해 병조참판兵曹參判을 거쳐 1436년에 병조판서兵曹判書가 되었다. 1440년 평안함길도도체찰사平安咸吉道都體察使로 파견되었다가 의정부좌참찬겸판병조사議政府左參贊兼判兵曹事로 제수되었다.

1439년 53세에 고향 파주 선산善山으로 퇴향退鄉해서 후진後進을 양성하면서 지냈다. 1441년(세종 23) 함길도에 파견되어 종성을 수주愁州 강변으로 이치移置하면서 종성·회령·온성·경원·경흥 등지에 소보小堡를 설치하여 북방의 방어를 강화하였다. 이후 빈번하여 평안도와 함길도를 출입하면서 북변을 개척하고 방어하는 데 공헌하였다. 1445년(세종 27) 좌찬성左贊成으로 판이조사判吏曹事를 역임한 뒤 1449년 의정부의 직에서 해임된 뒤 양계축성兩界築城의 일에 전념하겠다고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아 우의정右議政에 유임하면서 축성사築城司를 관장하였으며, 같은 해 좌의정左議政이 되었다. 1450년(문종 즉위년) 사은사로 명나라에 파견되었다가 문종의 고명誥命을 받고 귀환하였으며, 이듬해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가 되었다.

1452년(단종 즉위년) 빈전殯殿·국장國葬·산릉도감山陵都監의 총호사總護使가 되어 문종의 국상을

총령하였고, 이듬해 영춘추관사(靑春秋館事)로서 김종서 등과 함께 『세종실록』을 찬진하였다. 같은 해 김종서 등과 함께 어린 단종을 보필하던 중 계유정난으로 피살되었다. 1746년(영조 22) 복관되면서 신원되었다. 1791년(정조 15) 장릉(莊陵) 충신단(忠臣壇)에 배식(配食)되고, 1804년(순조 4) 집 앞에 정문이 세워졌으며, 1807년(순조 7) 조상의 묘를 옮기지 않는 부조지전(不祧之典)을 받았다. 파주 법원읍 동문리 월계단에 배향되었으며, 영천의 임고서원(臨臯書院), 구룡포읍의 경남서원(慶南書院), 종성의 행영사(行營祠)에도 배향되었다.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 3. 관련 자료

- 『篠叢遺稿』 下, 소총(筱叢) 홍유손(洪裕孫, 1452~1529 中宗24)의 시(詩)

坡州銀杏亭 파주은행정

倚樹坐望露露巾。 나무에 기대 앉아 이슬 젖은 수건을 보노라  
 夜分岑外月窺人。 밤중 산봉우리 뒤로 달이 사람을 엿보는데  
 滿尊玉友知心處。 가까운 벗들의 마음은 간 곳을 알 듯도 하고  
 莫恨光陰下坂輪。 한스러운 시간만 산비탈 아래로 돌아가고 있구나

- 『白麓遺稿』(1660年刊), 신응시(辛應時, 1532~1585), 李珥, 成渾 등과 교류

題成德久銀杏亭  
 蒼松翠壁望嵯峨。  
 朝暮雲煙變態多。  
 欲識終南眞面目。  
 携壺來訪夏山家。

- 『樊巖先生集』 卷之十六,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 1720~1799) 詩

霽月明甚。率友恭，弘遠暨成君數人。步出江干。放舟至銀杏亭下。  
 偶爾隨新月。欣然上小舟。澄明開大界。浩蕩失千愁。  
 灑氣如涓滴。恬風信去留。依依銀杏樹。遙識古亭幽。



## 其二

步屨閒乘夜。烟波戲放舟。鳧鷖應伴宿。風露更何愁。  
 花氣帆前入。天星水底留。漁竿休恣意。恐觸卧龍幽。

©조진석

# 노정(盧亭)터

- 소재지 : 파주시 탄현면 갈현 3리 갯말
- 건립시기 : 조선시대 15세기 중반
- 건립주체 : 노사신(盧思愼)

## 1. 위치 및 주변 환경

노정盧亭은 조선 중기 노사신(盧思愼 1428~1498)이 직접 지었다는 정자로, 후학들을 배출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의 탄현면 갈현리는 조선시대까지 교하군 현내면 소속이었고, 교하 노씨의 집성촌이 있었던 곳이다. 근래에 교하 노씨는 이주촌으로 이사를 나가 예전의 군락은 이루지 않고 있다. 현재 갈현리에 살고 있는 이경현(80)씨는 지금까지도 이곳을 노정터 뿌리라고 부르고 있다.



노정추정터 위성사진



노정추정터 지도상 위치

1995년 편찬된 『파주군지』에 노정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탄현면 갈현리 구포에 있었다고 한다. 보진재(保眞齋) 노사신(盧思愼)이 정자를 세우고 집필에 힘썼다고 하며 교하 노씨의 정자라는 의미로 노정이라 불렀다. 일명 영벽정(影碧亭)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다.

현재 노정터는 정자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고, 타 지역 사람이 들어와 주택을 지어 거주하고 있다. 집 뒤로는 500년 이상 수령의 느티나무가 있어, 이 부근이 건물지였다는 추정만 할 수 있다.

현재 느티나무 옆에는 요즘에 지은 심터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임진강과 공릉천까지 내려다 보이는 조망이 좋아 정자가 지어졌을만한 좋은 장소로 보인다. 이곳은 지금은 주변에 농지가 있고 공릉천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1913년 이 일대에서 이루어진 공릉천 하천정리사업 이전에는 공릉천 물줄기가 이곳 일명 ‘노정뿌리’앞을 돌아나갔다고 한다.

노정이 있었을 당시의 공릉천의 물줄기는 범흥리에서 노정뿌리를 휘돌아 송촌리 별관을 돌아서 갈현리에서 방천쪽으로 구불구불 흘러갔다고 한다. 이것을 1913년도에 곧게 펴는 사업을 통해 이 일대는 농지로 변화한 것이다.<sup>28)</sup>

그러므로 노정은 아름다운 공릉천 물길을 바라보는 자리에 지어져서 노사신 영의정이 이곳에서 글을 짓고 시를 읊는 정자의 기능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답사를 하면서 노정터 뿌리에서 창덕궁 표지석을 발견 하였다는 점이다. 이 표지석은 현재 마모가 심한 상태 이지만 ‘昌德宮’이라는 글자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노정 뿌리터에 살고 있는 주인이 이사를 오면서 주변에 있어서 옮겨 놓았다고 한다.



1872년 지방도 교하군지도. 공릉천의 물줄기가 구불구불하다.



1913년 하천정리 이후 현재의 공릉천 물줄기 구불구불하다.

28) 교하노씨 창성군과 종손 노성래씨 증언



## 2. 장릉과 노정의 관계

그렇다면 노정터에서 왜 창덕궁 표지석이 나왔는가. 창덕궁은 조선왕실의 궁궐로 이 지역이 창덕궁 관할의 땅이라는 표시 한 것이다. 노정의 위치는 장릉 좌청룡산 능선 끝자락으로 왕실 소유 땅으로 지정하고, 이 주변의 수목을 채취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노사신은 조선 초중기의 사람으로 정자는 이 때 만들어져 사용되다가, 영조 대에 문산에 있던 인조 왕릉을 옮기면서 조선왕실의 국유지가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유지가 된 후로 더 이상 개인 소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노정을 사용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미 노정은 사용되지 않거나 소실되어,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여러 옛 지도에서도 표기 되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노정터에서 발견된 창덕궁 표지석이 개인의 정원에 방치 되어 있는 상태이다. 장릉이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정을 포함한 주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후의 과제로 남긴다.



노정 추정터의 느티나무



노정터에서 발견된 창덕궁표지석

### 3. 관련 인물

#### 노사신 盧思愼

1427년(세종 9)~1498년(연산군 4)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교하交河이며, 자는 자반지般, 호는 보진재葆眞齋·천은당天隱堂이다.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물재物載의 아들이다.

1451년(문종 1) 생원시, 1453년(단종 1) 문과에 병과에 급제하여 곧 집현전박사集賢殿博士에 선임되었다. 이어 집현전부수찬集賢殿副修撰·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예문관응교藝文館應教 등을 역임하였으며, 1459년(세조 5) 세자우문학世子右文學, 이듬해에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이 되었다. 1462년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에 제수되었으며, 그 뒤 우부승지右副承旨를 거쳐 1463년 도승지都承旨가 되었다. 같은 해 홍문관직제학弘文館直提學을 겸하여 세조가 주석한 『역학계몽易學啓蒙』의 주석서 『요해要解』를 증보하여 찬진撰進하고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1465년에는 호조판서戶曹判書가 되어 최항崔恒과 함께 『경국대전』 편찬을 총괄하였으며, 호조판서戶曹判書로 충청도가관찰사忠淸道假觀察使를 겸하여 지방 행정의 부정을 낱낱이 조사하였고, 이듬해에는 승정대부崇政大夫에 올랐다. 또한 1466년에 실시된 발영拔英·등준登俊 양시에 응시하여 각각 1등과 2등으로 합격하는 영예를 얻고, 이듬해 말에는 건주위建州衛 정벌에 대한 군공2등軍功二等을 받았다. 1468년 남이南怡·강순康純 등의 역모가 다스려진 후의 논공으로 익대공신翊戴功臣 3등에 올라 선성군宣城君에 봉해졌다. 1469년 의정부우참찬議政府副右參贊·좌참찬左參贊을 거쳐 우찬성右贊成에 올랐다. 우찬성에 재임 중 명나라의 사신 강호姜浩의 접반사接伴使로서 명사와의 예교禮交를 맺어 외교적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다.

1470년(성종 1) 의정부좌참찬議政府左贊成에 올라 이조판서吏曹判書를 겸하였으며, 성종 즉위를 보좌한 공으로 1471년에는 좌리공신佐理功臣에 책록되었다. 1476년 영도녕부사領敦寧府事가 되었는데, 사서史書와 시문의 찬진과 성균관에서의 강의 등으로 성종의 문치文治를 도와 1482년 선성부원군宣城府院君으로 진봉進封되었다. 1485년에는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로서 평안도와 경기도의 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진휼사겸호조판서賑恤使兼戶曹判書가 되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1487년(성종 18) 말에는 명나라 효종의 즉위를 맞아 등극사登極使로서 명나라에 다녀오고, 이듬해 우의정이 되었으며 영안도도체찰사永安道都體察使가 되어 국가의 사민정책徙民政策을 담당하였다. 1492년(성종 23) 좌의정左議政, 1495년(연산군 1)에 영의정領議政에 올랐으나, 문과독권관文科讀卷官이었을 때 처족을 합격시켰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 영의정을 사직하였다.

1498년 무오사화 때에는 윤필상尹弼商·유자광柳子光 등이 주동이 되어 김일손金駟孫 등 사림파의 제거를 논의할 때 세조의 충신이었다는 처지 때문에 미온적으로나마 동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자광 등이 옥사를 확대하려는 것을 극력 견제하여 사림파의 피해를 줄이는 데 힘을 기울였다. 사옥史獄이 진행되는 도중인 같은 해 9월에 병으로 죽었다.

호조판서에 재직할 때 『경국대전』의 편찬을 주관하고, 『경국대전』 호전戶典의 편찬을 직접 담당하였다. 1476년(성종 7) 12월 서거정徐居正·이파李坡와 함께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를 찬진하고, 1481년에는 서거정과 함께 『동국통감東國通鑑』의 수찬에도 참여하였다. 그리고 1482년(성종 13)에는 이극돈李克墩과 함께 『통감강목痛鑑綱目』을 서거정·어세겸漁世謙 등과 같이 한글로 번역하는 등의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 시호는 문광文匡이다. 묘는 서울 노량진에 있다가 1940년 파주읍 백석리로 옮겨왔다. 같은 묘역 내에 할아버지 노한盧閑과 아들 노공필盧公弼 등의 묘가 함께 있다.

#### 4. 관련 자료

- 《추강집秋江集》 제3권, 추강 남효온(南孝溫 : 1454~1492), 시詩

노 상국盧相國의 효사정孝思亭에서 지정持正의 시에 차운하다

강가의 높은 누각은 여덟 창문이 밝은데 / 臨江高閣八窗明  
 능수머뭇들에 바람 들어 잎사귀마다 울리네 / 風入檉栎葉葉鳴  
 땅이 후미져서 속세 먼지 늘 닿지 않으니 / 地僻俗塵長不到  
 갈대 사이 어린아이 수레 소리에 겁먹네 / 蘆間童子怯車聲

※ 노상국(盧相國) : 노사신(盧思愼 : 1427~1498)을 말한다.

- 《오음유고梧陰遺稿》 제1권, 오음梧陰 윤두수(尹斗壽 : 1533~1601)

노자엄盧子儼의 천은당天隱堂에서 첩帖 속 제공의 시에 차운하다

문 앞에 누운 시든 버들 벽에는 벗겨진 단청 / 門臥枯楊壁剝丹  
 상공의 문채는 이미 청산이 되어 버렸네 / 相公文采已靑山

후손들은 사정첩을 읽지 않았는지 / 孱孫不讀思亭帖

천은당 중에는 백일만 한가롭네 / 天隱堂中白日閑

\* 천은당은 정승 노사신盧思愼이 창건한 것이다. 성묘成廟께서 잠저潛邸에 계실 때 행차하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얻었다. 노사신의 호이기도 하다.

● 《사가집四佳集》 제50권, 서거정(徐居正, 1420~1488), 시류詩類

촌가村家에 있다가 석양에 노 선성盧宣城 사신思愼 이 우의정에 제배되었다는 말을 듣고  
기쁨을 감당치 못하여 절구絶句 두어 수를 읊어서 기록하여 받들어 올리다 3수

담소하며 조용히 삼공 지위에 이르렀어라 / 談笑從容到上台

성군께서 진중하여 염매처럼 의지하시네 / 聖君珍重倚鹽梅

요즘은 휴가를 내서 시골집에 있다 보니 / 邇來休暇居村墅

축하연에 참석 못한 게 몹시 부끄럽구려 / 賀席深慙未獲陪

형클어진 두 귀밑털 은빛같이 세었어라 / 雙鬢刁騷白似銀

나이 늙어 치사할 때가 바로 명년 봄일세 / 引年致仕在明春

수중의 나라 다스릴 솜씨일랑 접어 두고 / 袖中閑却經綸手

전원에 가서 이 한 몸 편히 늙을까 하노라 / 擬向田廬老此身

여러 분은 서로 이어 높은 공훈 세웠거니 / 諸君袞袞策高勳

이 곤궁한 늙은 광문을 그 누가 세어 주랴 / 誰數酸寒老廣文

범로는 강호에서도 나라를 걱정했었고 / 范老江湖亦憂國

두릉은 한 끼 식사 때도 임금을 못 잊었네 / 杜陵一飯不忘君

\* 노선성盧宣城 : 노사신盧思愼을 일컫는다.